

新 哲學의 指導 原理

辨證法的 世界의 彼岸 ❶

金基錫

現代는 정히 『運動』의 世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자신 움직이지 안코 흔들리지 안는게란 업다고 합니다. 그것이 自然과 마조서는 歷史이거나 또 歷史에 대여드는 思惟이거나. 이러므로 一切의 存在, 一切의 事象은 진실로 이 流動性, 轉變性을 그 자신의 久遠한 運命으로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한 개의 새로운 論理가 오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납게 붓잡고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실상 이 새로운 論理는 전연 새로운 論理는 아닙니다. 이 運動의 理는 벌써 아득한 옛날 『타레스』의 思惟, 『헤라클레이토스』의 思惟에 잇서서 그테와 바탕이 잡혔던 것이였스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왜 이 오랜 論理를 들고 나서서 야단 들입니까.

모두가 움직인다. 모두가 밧고 잇다. 도대체 이 『움직인다』 『바꾸인다』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른바 『움직이는 일』 그 自體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가령 여기 풀 한 포기나 잇지 안켓습니까. 나고 자라고 옥어지고 시들고, 이 풀 한 대 한 대가 久遠한 빛, 久遠한 모습을 지닐 까닭이 잇겠습니까. 이것들은 자기를 한 순간 한 순간 살리면서 죽이고, 죽이면서 살리는 無常한 轉變속에 싸힙니다. 이제 어떤 풀이 께서 이슬이 떠러진다고 합시다. 이 떨어지는 이슬 한 방울, 또 그것이 숨여드는 흙 한 덩이에 이르러서도 事情은 마 찬가집니다. 변하지 안는 이슬방울, 풀리지 안는 흙덩이란 것이 잇겠습니까. 아하, 久遠한 것이 잇다면 그것은 진실로 이 『움직이는 일』 自體가 아닐 수 업습니다. 얼마나 만흔 것들이 어떻게 기피 움직이고, 바꾸이고 잇는가를 보 아보셔요.

그런데 모두가 왜 이러케 변하는고. 그것은 모두가 時間 속에 잇는 때문이 겠습니다. 運動이란 곳 어느 意味의 時間性이 아니겠습니까. 이 時間이 바로 一切의 流動轉變을 가져 오는 根源이요, 地盤이겠습니다. 『運動의 論理』는

곳 『時間의 論理』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도를 運動에 잇서서 이야기 하는 것은 모도를 時間存在, 時間的 事實로 보려는 態度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도를 時間에 잇서서 뿐보는 것은 存在의 時間的 理解이요, 存在 性格的 理解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存在의 時間的 理解와 구별되는 存在의 性格的 理解란 어떤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아페서 모도가 움직이고, 바꾸인다고 보았고, 또 그러케 보는 것이 이 世紀의 사람들의 思惟 우에 큰 努力을 잡고 잇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일』이란 것을 反省해 봅시다. 아페서도 보았거니와 우리들은 一切의 存在, 一切의 事實이 不斷한 流動 속에 잇다는 것을 否認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움직인다. 무엇이 바꾸인가. 그것입니다. 이 『무엇』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는 일이 具體적으로 이러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무엇』이 움직이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自然이나 歷史나 또 거기에 대한 人間의 思惟나, 말하자면 움직이는 일의 主體인 움직이는 것이 업서서는 안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어떤 무엇이 時間 속에서 움직이게 되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움직일 때 그것은 자기를 어디까지 던지 집히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무단히 변하면서 변하지 안하여야합니다. 이 변하면서 변하지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 테블[테이블]우에 책 한권 이 노히지 안헛겠습니까. 그 겨테는 잉크병이 노히고, 펜이 노히고, 原稿紙가 노히고, 또 테블에 향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에 잠겨서 안저 잇고. 이제 이 책, 잉크병, 펜, 원고지, 나. 이것들은 모두 時間 속에서 싸혀 한 순간, 한 순간 자꾸 변하고 바꾸이고 잇습니다. 그 테가 변하고 비치 날고 바탕이 갈리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한 가지로 時間 속에서 변한다고 하지마는 실상은 어디까지던지 책은 책인 대로 원고지는 원고지 대로 잇스면서 변하거든요. 아무리 時間 속에서 변하고 옮겨 간다기로서니 책이 금지에 원고지가 되엇다가 잉크병이 되엇다가 또 그 아페 안것는 나, 한 사람이 되엇다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時間 속에서 무단히 자기를 직히고 주장한다.』 存在의 理解로서의 이 새로운 見解는 오늘의 『運動의 論理』에 대하여 가기를 『限定의 論理』라고 불려서 좃습니다. 우리들이 아페서 存在의 性格的 理解라고 부른 것은 存在의 運動속에서 存在의 性格을 읽는 이 『限定의 論理』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하기는 모두 어떤 것이 변한다, 움직이기는 모도 어떤 것이 움직인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변하고 움직일 수는 업지 안습니까. 그런데 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속에는 변하지 안코 움직이지 안는 『일』이란 것이 들어 잇습니다. 말하자면 변하는 것인 存在 속에는 변하지 안는 일인

性格이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움죽임은 본대 어떤 것의 움죽임이 되어야 하고, 이 어떤 것은 움죽이는 한편 부단히 자기를 직히고 한정하고 주장하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안름일이 들어있다. 이 얼는 보기에 한 개의 逆說 가튼 言表가 우리들을 도리어 『運動』에 관한 眞實한 理解에 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